

洪吉童傳考

— 構造, 論理, 그 嘴矢의인 點을 中心으로 —

尹 榮 玉

<內 容>

I. 序

II. 本 論

一. 構 造

1. Protagonist 와

Antagonist.

2. 出發과 終結

3. 一生과 事件

4. 統一性

二. 倫 理

1. 父子의 倫理

2. 君臣의 倫理

3. 社會의 倫理

4. 國家觀

三. 洪吉童傳의 小說로서의
嘴矢의인 點

1. 出生譚(偉大한 主人公)

2. 脫出과 復歸의 公式

3. 出戰과 勝利의 公式

4. 支配의 原理

5. 傳記性

III. 結 論

I. 序

洪吉童傳, 이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고, 또 그만큼 많이 연구되었다.¹⁾ 우리의 小說을 이야기할 때, 이 作品을 빼고서는 이야기가 되지 않고, 또 우리 小說의 始源을 遷及해 올라갈 때 반드시 여기서 그 出發을 찾지 않으면 안되는 것 같이 생각해 왔다. 물론 이 作品의 源泉은 中國에서 찾고 있지만, 그래서 筆者는 이 作品의, 우리 小說作品에 있어서, 그 嘴矢의인 點과 아울러, 小說作家들의 小說構造意識과 그 作品속에 나타낼려고 하는 倫理問題를 한 번 톱춰해 볼까 한다.

왜냐하면, 構造는 作品이 作品되기 위한 不可缺의 要素이며, 倫理란 우

1) 소재영 : 고대소설판제 논저총람, 月刊文學 22~24號

리 小說作品의 內的인 要素이기 때문이다.

또 우리의 것을 純粹하게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雜多한 西歐의 理論을 忌避하고, 作品 自體에 即해서 앞에 내세운 目次에 따라 論議해 가기로 한다.

本 論考의 Text는 京板本 洪吉童傳이다.

II. 本 論

一. 構 造

構造란 概念에 對하여 修辭學乃至 美學의인 意味가 어찌하건 간에 한作品이 어떠한 骨格에 依하여 爭취했는가 하는 것을 構造라는 概念으로筆者는 把握해 보았다.

1. Protagonist 와 Antagonist.

여기서 西歐의인 用語를 借用하였다. 理由는 要約的이고 壓縮的인 概念인 것 같아서 한 번 써보았다. 여기 이 말을 이 作品에서 마구면 出生된主人公과 社會의인 制約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우리 古代小說作品의 主主人公은 그 出生 以前부터 偉大하고 거창한 兆朕에 依하여 出生의 動機가 마련된다. 이는 적어도 傳統의인 作品에 있어서는 不可缺의 要件이 되며, 三國史記나 三國遺事에서 그러한 類型을 發見할 수 있다.

설시의 공이 질동을 나흘 셰의 일동을 어드니 문득 뇌정벽벽이 진동하고 청룡이 수염을 거스리고 공의세 항호여 다라들거늘 놀나 셔다르니 일장출동이라 심중의 대희호여 성작호되 너 이제 룽몽을 어녀시니 반듯시 귀호 조식을 나흐리라.²⁾

이것이 바로 洪吉童이 出生하게 되는 動機가 되는 것이다. 龍夢을 염여 貴子를 誕生시킨다는 것은 우리 先人們의 意識의 底邊을 차지하고 있는 公式이다.³⁾

2) 경판본 洪吉童傳에서의 引用 이하 같음.

2) 大概의 古代 小說主人公의 出生談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偉大한 한 人物을 順調롭게 誕生시키기에는 社會的인 倫理가 順順히 許諾하지를 않는다.

즉시 너당으로 드러가니 부인 뉴지 나리 맛거늘 공이 혼연이 그 옥류를
냈거리 정이 친압고저 흥거늘 부인이 경석 왈 상공이 체워 혼중호시거늘
년소경박조의 비루호물 헝코적 혼시니 점은 봉황차 아니호리로소이다.

이와 같이 體位를 損傷하는 問題로 貴子를 얻을 機會를 놓치게 된다.
이는 바로 生前의 吉童에 대한 制約의 始源이다. 이리하여 그는 社會에서
하나의 脚光받을 存在로 誕生하지 못하고 賤待받는 侍婢의 所生으로 태어
나지 않으면 안되었다.

십삼만의 일끼 옥동을 성호니 괴골이 비범호여 진것 영웅호절의 괴상이
라. 공이 일면 것거호나 부인에게 나지 못호를 한호더라.

이것이 이 作品을 읽어나가게 하는 실마리가 되는 것이다.
하나의 英雄豪傑은 誕生하였으나 賤生이란 束縛에 依하여 裂綰되고 抑
壓된 生活을 하지 않으면 안되니, 內心의 不滿은 한없이 助長된다.

질동이 점점 즈라 팔세퍼리 총명이 과인호여 한아흘 드르면 빅을 통호니
공이 더욱 외증호나 근본 천성이라 질동이 미양 호부호령호면 문득 무지
져 못호개 혼니 질동이 십세 넘도록 감히 부형을 부르지 못호고 비복동이
천덕호를 자끌통한호여 심소를 정치 못호더니……

당시의 制度로서는 良人과 婦僕 사이에서 난 子女는 亦是 賤人이 되지
않으면 안되었으나, 侍婢의 몸에서 태어난 吉童인자라, 아무리 그 父親이
宰相이라 하나 亦是 賤待를 받지 않을 수 없고, 또 보통의 아이였으면 모
르지만 聰明過人한 吉童인자라, 그 賤待의 不當함을 痛感하지 않을 수 없
다. 거기에서 그의 性格形成은 더욱더 反抗의이며 破壞的으로 되어간다.

청년 범죄는 나쁜 근린에만 의하지 않는다. 그것은 특히 대도시에서 어
떤 도회구역의 특징으로 인정되는 불행한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조건의 하나의 전체 유형으로부터 결과한다. 이들은 대가족, 부적합한 거
주, 저수입, 무교육, 가정의 혼육과 감독의 결여, 가족해체 그리고 부적

합한 오락시설을 포함한다.⁴⁾

위와 같은 引用文을 傍證資料로 삼지 않더라도 吉童의 環境條件은 極히 不良하여 그의 反抗心은 助長될 대로 助長되어⁵⁾,

대장부 세상에 나비 풍명을 본빛지 못하면 찰아리 병법을 의와 대장부
을 요하의 빛기 추고 동정서별호여 국가의 덕공을 세우고 일홈을 만덕의
빛너미 장부의 쾌식라 나는 잇자호여 일신이 적막하고 부령이 이시되 호
부호형을 뜯호니 십장이 더질지라 엊지 통한지 아니리오.

하고 어찌할 수 없는 자기 處地를 恨嘆하고 있다. 이는 바로 吉童과 그
反對勢力인 社會制度와의 팽팽한 對決이며 비로소 意識된 葛藤이다. 그러
나 그 葛藤은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다.

(谷山母 初蘭이) 쳐는 0들이 업고 출섬은 칠동을 나아 상공이 미양 키
히 네이물 심중의 앙양호여 업시호를 도모호더니 일일은 홍계를 성각하고
무녀를 청호여 왈 나의 일신을 평안케 하믄 이곳 칠동을 업시키의 잇는
지라 만일 나의 소원을 닐우면 그 은혜를 후히 갑호리라.

이와 같이, 같은 身分의 賤人에게서까지 詛呪의 對象이 되며, 결국 흥
계에 빠져 死境에서, 그의 道術에 의하여 죽음을 도면하게 된다. 吉童에
대한 또 다른 劢力의 挑戰이며, 兩勢力의 葛藤의 深化이다.

4) S. Stansfield Sargent; Social Psychology. p. 80

5) 아동과 양친 간의 관계 : 글년 8세인 B는 그의 가정이나 학교 지역 사회에서 항
상 문제 아동이었다. 그는 대단히 총명한 아이였으나 학급에선 거의 교정할 수
없을 정도로 행동하였다. 그는 여아를 계단에서 아래로 떠밀고 좋아했으며,
또 「자동차가 급정거할 때에 변하는 금속성 음향을 듣기 위하여」 차도에 뛰어
들었다. 어느때가 그는 육중 육상의 물로 만들진 난간을 걸어 다녔다. 그러나
그는 바쁜길을 걸을 때 극히 호감을 갖게 하는 소년이었다.

B의 모친은 30세 후반이 약간 신경질적인 부인이었고 그의 부친은 그보다
좀더 영상이었다. 그들은 온종일 끌다툼하고, 서로 욕하고, 소리치르고, 그
리고 실제로 육박전을 하였다. ……中略…… 양친은 모두 고등교육을 받았고 그
리고 좋은 이웃에 살고 있다. 그들의 부부싸움만이 그들 가족사정의 심각하고
불행한 측면이었다.

설명은 자국히 뚜렷하다. 가정에서의 거절된 안전과 불안은 B를, 극렬히 보
상적이고 공격적이며, 자기에게 타인의 주의를 집중시키려는 意表로 인한 탈
선 행위를 하게 하였다.

(S. Stansfield Sargent; 前揭書 pp. 67~68)

길동이 공경 데왈 쇼인이 맛춤 월식을 사랑호미여니와 대개 하늘이 만물을 낸시리 오직 수립이 귀호오나 쇼인의게 나르려는 귀호오미 업소오니 엊지 사름이라 호오릿가……

쇼인이 평성 결운 바는 대감 경기로 당당호온 남자 되여소오더 부성모 흙지은이 깁습거늘 그 부친을 부친이라 못호읍고 그 형을 형이라 못호오니 엊지 사람이라 호오릿가 하고 눈물을 흘여 단상을 쳐시거늘

이와 같이 吉童은 敵對勢力에 挑戰하여 問題를 解決하려 한다. 그러나 現在의 吉童의 힘으로는 너무나 巨大한 力度을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다.

저상가 천비소성이 비단 너뿐이 아니여든 네 엊지 방조호미 이갓호요.
초후 다시 이런 말이 이시면 안전의 용납지 못호리라.

이것은 吉童父親의 말이다. 이미 既定事實로 되어있는 하나의 社會制度 自體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어미 청파의 대경을 저상가 천성이 너뿐이 아니여든 엊지 협호 마운 을 발호여 어미 간장을 살오누요.

오히려 더 至痛하는 그의 母親은 그 痛恨하는 점을 受諾함으로써 그를 잊으려는 逆說的인 論理를 갖고 谒念하는 것이다.

그러나 吉童은 谒念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여 거기에 積極的으로 抵抗 할 수도 없고, 오직 消極的인 脫出의 方法밖에 생각할 절이 없는 것이다.

벗날 장충의 우들 길산은 천성이로되 십삼세의 그 어미를 나별하고 운봉산의 드러가 도를 닻가 아름다운 일홈을 후세의 유전호여시니 쇼자 그 를 호축호여 세상을 버서나려 호오니 모친은 안심호사 후일을 기두리쇼서.

길동이 복지 대왈 쇼인이 일즉 부성모흙지은을 만분지일이나 갑흘가 ह여더니 가니의 불의지인이 엇소와 상공의 춤쇼호고 쇼인을 죽이려 호오미 계오 목숨은 보전호여소오나 상공을 외실 길 업습기로 금일 상공과 고호 누이다.

이와 같이 決心한 吉童이 現在의 狀況에서 脫出함으로써 作品의 兩勢力의 蔣藤은 解消되는 것 같으나, 그 脱出은 敵對勢力에 對抗하기 위한 힘의 緊密을 위한 것이다.

나는 경성 흥관서의 천첨소첨 철동이더니 가중천덕을 맛지 아니하려 사
히 활방으로 정처업시 달니더니 우연이 이곳의 드라와 모든 호걸의 동뇨되
물내르시니 불승감사하고거니와……

이리하여 그는 盜賊의 魁首가 된다. 그리하여 그는 活貧黨을 組織하고
不義와 貪虐에 抗拒하여 戰擊과 掠奪로 그의 힘을 誇示하여, 결국은 그가
抑壓받고 있는 制度를 만들어낸 朝廷에 對抗한다. 그러나, 그 對抗은 對
抗을 위한 對抗이 아니고 상감계 達意하기 위한 手段이다.

신이 전하를 빙드려 만세를 띠울가 흐오나 천비소성이라, 물으로 옥당의
막히읍고 부로 섭천의 막힐지라 이려므로 소방의 오유호와 판부와 작폐 흐
고 데정의 특좌흐오문 전히 오르시게 흐오미려니……

그리하여 그는 朝廷과의 對抗에서 결국 勝利를 거두게 된다. 그 勝利가
아두리 아이러니할하더라도, 兵曹判書에 除授되니, 賤生으로서는 生心도
못할 遷官인 것이다. 現實的이든 幻想의이든 간에 吉童自身으로서는 그
의 問題가 解決된 것이다. 이로써 이 作品自體에 提起된 問題와 蔣藤은
解消되었다.

그러나 이것으로 作品自體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職位와 身
分으로 봐서 人間이 達할 수 있는 것은 帝王이 있기 때문에 吉童 같은 非
常한 英雄豪傑로서는 帝王의 位에 오르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그 帝王
은 國內에서는 不可能하다. 그것은 現朝廷의 王에 대한 叛逆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는 海外의 帝王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王侯將相 寧有種
乎”라는 四民平等과 能力의 問題가 提起되었다.

2. 出發과 終結

作品에 있어서는 그 作品을 構成하고 있는 要素로서 어느것이나 다 重
要하겠지만, 出發과 終結은 讀者에게 鮮明한 印象으로 남을 수 있으며,
우리의 古代小說에서는 一定한 公式을 갖고 있기 때문에 特히 하나의 項
목으로 다루어 보았다.

화설 朝鮮國 세종묘 시절의 한 지상이 이시니 성은 흥이오 명은 뼈라
되며 정문거족으로 쇼년등파하여 벼슬이 니죠관서의 니르미 물방이 토야
의 웃들이오 충효겸비호기로 일홍이 일국의 진동호더라 일즉 두 아들을
두어서니 일주는 일홍이 인형이니 명실 뉴시 쇼성이오 일주는 일홍이 결
동이니 시비 춘성의 쇼성이라.

金寅信：虎力伊干之子 舒玄角干 金氏之長子曰寅信。弟曰欽純。姊妹曰
賓姬 小名阿海 妹曰文姬 小名阿之 廷信公 以眞平王十七年乙卯生(三國遺事
卷第一 紀異第二 金寅信)

太宗春秋公：第二十九太宗大王 名春秋 姓金氏。龍樹(一作龍春)角干 追封
文興大王之子也 姮眞平大王之女天明夫人(上同 太宗春秋公)

乙支文德 未詳其世系(三國史記 卷第四十四 列傳 第四 乙支文德)

居柒夫(或云 荒宗) 姓金氏。奈勿王五世孫。祖仍宿角干 父勿力伊滾(上同
居柒夫)

처음의 引用文은 洪吉童傳의 序頭이며 그 밑의 것은 末尾에 明示된 바와
같이 三國遺事와 三國史記의 列傳에서 그 文頭를 取引한 것이다.

主人公의 家系와 그 父母에 대한 事實을 맨먼저 記述하고 있는 點은 어
느것이나 같다.

아래에 參考로 中國 施崎의 「中國文章論」에서의 文體分類의 總表를 提
示해 본다.⁶⁾

여기서 理智의 間接表現에 記事文이 있고, 이 記事文은 다시 <發於傳
信之史乘>과 <發於虛構之小說>로 나뉘며, 前者에는 傳狀 典志 叙錄文
이 包含되고, 後者에는 志怪小說과 人情小說이 包含되어 있다. 위의 史
記나 遺事에서의 引用文은 傳狀文에 屬하는 것이겠다. 이는 本來 史家의
손에서 脫落한 것이라, 여기에 虛構가 加해진 것이 小說이 아니겠는가 한
다.⁷⁾

6) 李家源著；漢文新講 文體 白國新派의 文體分類에서 再引用 參照

7) 小說著 舜談卷說塗駢 塗駢者之所造也 科官文學에서 發達

		人格=意志					總	
		現表接間		直接表現			源	
情念				論理文				
{解現表達遵守 曲調而現而				論理文				
抒情文		記事文		發於傳語之	發於勸告之	發於解疑之	論評發於辨惑之	第一級類概況
發於對比之 歌詠發於對比之	務諸曲調發於對比之 情念發於自我形式	歌舞發於對比之 戲詞樂發於虛構之	史乘發於傳信之 小說發於虛構之	告語發於勸告之	疏證發於解疑之	札考索圖序義傳	批議評論	第二級類概況
賦贊箴哀古今謠體 頌銘祭	賦文文文	賦文文文	賦文文文	賦文文文	賦文文文	賦文文文	賦文文文	

麴聖字中之 酒泉人也 少爲徐邈所愛 遥名而 字之遠祖本溫人 恒力農自級
鄭伐周獲以歸 故其子孫或布於鄭 曾祖史失其名 祖牟徙酒泉因家焉 遂爲酒泉
郡人 至父醒 始仕爲平原督郵 娶司農卿穀氏女 生聖聖 (東文選 卷百 傳 麴
先生傳 李奎報)

草屋子 鶴林之士族也 少孤力學 年十九 中進士科 學日益進 (東文選 卷百
一傳 草屋子傳 李崇仁)

위의 引用文은 東文選의 <傳>에서 각作品의 序頭部分만 取引한 것이다.
우리는 麴先生傳을 <假傳體小說>이라 하여 <小說>이란 이름을
붙이고 있다. 그 序頭는 앞서 引用한 別傳類와 다를 바가 별로 없다.

世有元子虛者 慷慨士也 氣宇磊落 不容於時 累抱羅隱之悲 難堪原憲之貧
朝出而耕 暮歸讀古人文書 (夢游錄 : 元昊)

靖嘉初 松都有名唱真伊者 女中之倜儻任俠人也……(真伊 : 柳夢寅)

이것은 李家源 譯編 <李朝漢文小說選>에서 引用한 것이다. 또 다음은 우리 小說의 最初의 作品 金鰲新話의 虛頭部分을 例示해 보겠다.

南原有梁生者 早喪父母 未有妻室 獨居萬福寺之東 房外梨花一株 方春盛開
(萬福寺悽蒲記)

松都有李生者 居駱駝橋之側 年十八 風韻清邁 天資英秀 常詣國學 讀詩路
傍 (李生窺牕傳)

위의 引用과 叙述을 通해서 우리는 우리 古代小說의 虚頭法 다시 말해 서 그 出發法은 傳狀類의 그것에서 發展해온 公式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어떤 事物의 始源을 追求하려는 人間心理의 理智的 表現이라 하겠으며, 또 古代小說作家들에 있어서는 構成의 始發을 主人公의 家系와 出生에 두지 않을 수 없는, 그들에게 親熟한 發話法이며 發想法이었던 것이다.

추설 윤도왕이 삼송을 맛치매 뒤판에 이어 기세호리 선능의 안당호후 삼송을 맛치며 왕이 숨즈 이녀을 섬흐니 당조 츄즈는 빅시 쇼성이요, 삼즈 치녀는 도시 쇼성이라 당조 혼으로 세즈을 봉하고 기여는 다 봉군호니라. 왕이 치국 삼십년의 훌련 득병호여 봉호니 쉬 철십이세라. 왕비 이어 봉호리 선능의 안당호 후 세자 즉위호여 뒤판로 계계승승호여 태평으로 누리더라.

이것이 洪吉童傳의 終結부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의 事實을 發見하게 된다. 즉, 主人公의 平生事의 完全한 終結과, 後嗣의 處理와, 自身의 죽음이 그것으로, 이 세 가지가 終結부를 形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구려 세월이 여류하여 채롱이 나희 십팔세에 이르매 예부상서 왕경의 여를 취하여 마저오니 아리따운 태도와 덕행이 장부인에 나리지 아니하고 또한 효봉구고 승순군자하며 살림의 기꺼하심은 측량없고 가내 화탁태평하여 만사에 그럴 것이 없이 지내는 중 장부인은 삼남일녀를 두고 왕부인은 이남일녀를 두었으되 각자 부풍모습하여 조부모님께 효도함과 종형제간 우애 지극하니 살림이 더욱 기뻐 사랑함이 비활 대 없더라. 승상부자와 윤상서 진충갈력하여 나라를 도운새 시화세종하여 산무도적하고 야불폐문하니 천하 태평하여 백성들이 강구연월에 격양가를 부르니 가위

요순적 시절일베라. 살림이 두 아들의 소생 손아등을 차례로 각각 명문 거족에 남가녀혼하여 자손이 만당하여 화락중에 세월을 보내더니 흥진비래는 자고 상사라 살림이 넓고하시매 우연 득병하여 세상을 하직하시니 승상 삼남매와 두 부인의 애통함은 이로 기록지 못할네라 백일하여 선산에 안장활새 이 배 천자 들으시고 출퍼하사 래부에 전지하여 특별히 왕후의 레로 장사하라 하시고 시호를 나리사 총렬공이라 하시다. 상가에 세월은 더욱히 빠른지라. 어언간 삼년초토를 마치매 승상부부 형제남매의 호 천망국이 날로 더하니 그 효성을 가히 알베라. 이 때 쟤룡이 등과하여 벼슬이 한림학사에 이려 상종이 날리 더하시니 명망이 조정에 진동하더라. 이 후로 자손이 점점 번성하여 계계승승하여 일세이세로 지우 만세무궁하니라. (어룡전)

여기 <어룡전> 한 편의 終結部를 장황히 例示해 보았다. 洪吉童傳의 終結部가 갖고 있는 세 가지 要素를 다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비록 어룡전뿐만이 아니고 <傳>字가 붙어 있는 대개의 古代小說들이 갖추고 있는 終結部의 要素이다.

出發도 그리하지만 終結도 또한 重要하며, 어디에서 어떻게 한 作品을 終結시킬까 하는 것은 作家의 作品構造意識과 그의 倫理에 關係되는 問題인 것 같다. 한 主人公의 終焉을 보지 않고는 우리의 마음은 未洽한 感을 가질 것이며, 그 主人公의 終結은 現實世界와의 離別에 있는 것으로 意識하기 때문에 自然 그 終結은 <죽음>이 되지 않을 수 없다.

洪吉童傳類의 作品은 그 出發은 主人公의 誕生이요, 그 終結은 主人公의 死別이다. 이런 點에서 이를 部類의 作品을 傳記의 構造의 作品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⁸⁾

3. 一生과 事件

여기서 <一生>이란 말을 使用한 것은 이 作品에서 取扱된 <時間>이主人公의 平生事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앞 2項에서 밝혀졌다.

십중의 덕희호여 성각호되 너 이제 룽몽을 어더시니 반드시 귀호 조식
을 나흐리라.

8) 呂增東:「洪吉童傳의 構造論」(常山 李在秀 博士 還暉紀念論文集p333)에서는 이를 三段으로 나누어 각각 劇的小說, 行動小說, 年代記小說이라하고 있지만.

파열 그 달붓허 턱과 잇서 십삭만의 일개 옥동을 성하니 그물이 비빔하여 친짓 영웅호걸의 미상이라.

길동이 겹겹 조라 활세되며 총명이 과인하여 호아총 드르면 벽을 통하니

대장위 세상의 나리 공명을 본받지 못하면 찰아리 형법을 외와 대장님을 요하의 빛기초고 등정셔벌하여 국가의 덕공을 세우고 일홈을 만덕의 빛뉘미 장부의 폐쇠라.

길동이 본더 저지 과인하고 도량이 활달호지라.

상네 이윽히 보다가 놀나며 월 이 공조의 상을 보니 천고영웅이오 일터 호걸이로더 다만 지체 부족하오니…… 흥중에 초췌 무궁하고 미간의 산천 정거 영농하오니 진짓 왕후의 미상이라 장성하면 장추 멀문지화를 당하오리니 상공은 살피소셔.

作品의序頭에서 이미主人公 吉童의 將來人物 특히 才氣와 度量과 智謀와 將來의 地位를 말해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吉童의一生은 이미 定해졌고, 그의一生은 定해진宿命에 依하여 움직여지는 것이다.

作品의構成要素가운데서 가장能動的이고核心이 될만한것이 人物이며, 이人物이, 內的인心理와 外的인諸環境, 條件에서 빛어내는것이事件이며 이兩要素가 存在할수 있는 空間의in 時間의in 要素가 있는 것이다. 人物과 時間에 對해서는 이미論及하였으므로 事件에 關해서 살펴보도록 한다.

洪吉童傳을 結構하고 있는 事件은 다음과 같다.

- ①主人公의出生以前의 事件—胎夢, 夫人の拒絕.
- ②脫出의 契機가 되는 事件—一家人의 賤待, 初蘭의 謀害.
- ③敵對勢力에 對抗하기 위한 힘의 納合—盜賊의 魁首로 活貧黨組織.
- ④敵對勢力에 對抗—掠奪, 襲擊.
- ⑤對立의 解消—兵判除授.
- ⑥主人公의 經綸을 평—海外開拓.
- ⑦不滿의 解消(欲望의 終結)—韓島國의 王이 됨.
- ⑧主人公의 죽음

여기 提示한 事件들은 全部 Topical 한 事件들이며, 결코 些少한 一生事가 아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洪吉童傳을 하나의 行動小說로 看做할 수도 있겠으나⁹⁾, 그런 公式에 代入하고 싶지는 않다. 왜냐하면 그런 公式에 代入해 넣을 때(行動을 爲主로 하여) 이 作品을 全體로서 把握할 수 없기 때문이다.¹⁰⁾ 우리의 古代小說은 說話文學으로 行動의 主體인 人間, 主人公의 平生事에 主眼을 두었지 결코 客觀化된 行動을 重視하지 않았기 때문이다.¹¹⁾ 그러하기 때문에 表現文學인 戲曲의 構成公式에 代入해 넣을 수 없고, 그렇게 代入할 때 作品을 完全히 理解할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 이 점은 적어도 洪吉童傳에서는 틀림없다.

4. 統一性

統一性이란 事件이 因果關係에 依하여 맺어져서 必然의 終結을 맺는 것을 말하는 것 같으나, 作家가 最初에 意圖한 終結을 如何히 結果시키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古代小說을 두고 볼 때, 더욱 더 적절한 概念規定인 것 같다. 다시 말하면, 作品에 內包된 倫理의 統一性이란 말로 代置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우리의 古代小說作家는 大部分 自己의 作品에 한 뚜렷한 主人公을 내세우고, 그 主人公의 行動에 同調하고 讀辭를 보내며 그가 悲運에 빠져있을 때는 언제나 同情을 禁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主人公의 行動에, 事件에, 因果的인 必然性을 要求하기 보다도 오히려 奇蹟이라도 일어나서 主人公에 有利한 方向으로 事件이 進展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主人公이나 그 외의 人物들이 凡常한 人間이 아니고 非常한 人間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洪吉童傳을 비롯한 大部分의 作品의 人物들이 이러한 範疇의 人間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分析的, 客觀的인 事實의 重視보다는 Happy-ending 을 追求하는 우리 古代小說作家들의 意識이 發露되었다.

통물은 어녀시니 반듯이 귀호 즐식을 나흐리라→십 삵만의 일기 옥동을
성호니 거풀이 비범호여 진짓 영옹호결의 고상이라→겹겹 조라 팔세되며
총명이 과인호여 혼아흘 드려면 빅을 통호니→대장부 세상의 나비 공명

9) 李在銑 中東旭의 「文學의 理論」에서 그렇게 보았다.

10) 洪吉童傳을 二幕(또는 二部)으로 構成된 作品이란 說(李在秀, 韓國小說研究)은 그 때문이다. 沈清傳과 같은 作品도 마찬가지다.

11) 傳記의인 點을 重視해 볼때.

을 본받지 못하면 찰아리 병법을 외와 더장년을 요하의 빛기 츄고 동정서 벌하여 국가의 대공을 세우고 일홈을 만덕의 빛나미 장부의 폐서라→공 조와 삼을 보은즉 충종의 죄와 구궁하고 미간의 신천정과 영농호오너 진짓 왕후의 거상아라→칠동이 궐녀의 드려가 속비하고(兵刑除授 받고) 쥬월 쇠선이 죄악이 지증호울거늘 도로혀 텐운을 넙조와 평성한을 뿐을고 도리가오나 영결전하호오니 북방 성양은 민족무강호소서 허고 말을 맛초며 몸을 풍증의 소조와 구름의 쓰이여 가니 그 가는 바를 아지 못할너라. 상이 보시고 도로혀 촛탄활 질동의 신과호 저조는 고금의 회한호도다→남경싸 체도섬으로 드려가 츄천호 집을 짓고 농업을 힘쓰고 저조을 비화 무교운 지으며 군법을 연습호니 병정양족호너라→남중의 울도국이란 나라 이 잇스니 옥나 수첩니의 진것 천부지국이라 칠동이 리양 유의호든 비라 재인을 불너 월 니 이제 울도국을 치고져 흐는니 그덕등은 진심호라 허고 츄일 진근홀서→칠등이 성중의 드려고 빅성을 암무하고 황위의 즉호 후왕이 치국 삼년의 산무도직호고 도불습유호니 가히 터평세제려라.

洪吉童傳에서는 위와 같은主人公의生涯를 통한 한運命의統一性을 찾아 볼 수 있다. 이것은分明히作家의意圖의統一性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¹²⁾

2. 倫 理

여기서 倫理란 人間相互關係의 秩序와 人間의 對社會的, 國家的인 關係의 秩序와 行動의 論理에 調한 觀念을 말한다. 하지만 倫理란 말을導入한 理由는 古代小說作家들은 作品속에서 제마다의 어떤 倫理를 實踐해 볼려고 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主題(人生問題)는 倫理에 關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古代小說作品의 主題를 千篇一律의 으로 勸善懲惡이라 하는 理由도 여기 있다고 생각한다.

洪吉童傳에서 作家許筠이 어떤 倫理觀을 가졌는가 하는 點을主人公의 言動을 中心으로 分析해 본다.

(12) 金一烈:「洪吉童傳의 不統一性和統一性」(語文學第27輯 p.70)에서 本傳의 構造는 縱橫으로 不統一되어 있으나, 그 解明은 社會的 意味와 行動의 原理를 一元化하여 簡極의統一性을 찾아냄으로 可能하다 했다.

1. 父子의 倫理

질동이 미양 호부호형 허면 문득 주지쳐 못하게 허니 질동이 십세 넘도록
감히 부령을 부르지 못하고……

아무리 父子間의 骨肉之親이라 하나 社會的인 制約에 依하여 呼父呼兄
조차 못하는 實情이다. 「대감 정지로 당당한 남자 되여 소오리 부성도혹
지은이 깁습거늘, 그 부친을 부친이라 못하고, 그 형을 형이라 못하고
니 엊지 사람이라 호오리잇가」할 정도로 賤生에 있어서는 올바른 父子之
情이 認定되지 않았다.

공이 청파의 비록 측은하거나 만일 그 뜻을 위로하면 모임이 방조홀가 쪘
어 크게 주지쳐……

그러나 父子之情이 없어서 그런것이 아니고 制度에 억눌려 그 情을 認
定해 주지 않는 것이 그 아버지다. 하지만 마음가운데의 情이야 다를 수
없다.

공이 조연을 듯고 질동의 너소를 알고져 허여……

相女를 불러 來事を 물을 정도로 걱정하는 그 아버지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滅門之禍가 미치겠다 할 때는 「질동을 산정의 머물게 하고 일
동일정을 엄숙히 실필」정도로 차식보다는 家門을 重히 여기는 것이 그 아
버지다.

그래서 子息과 家門, 이 두 개를 놓고 그는 마음 가운데 혼자 고민하고
있다. 吉童을 없앨 謀議를 들었을 때 그는 「눈섭을 찡피여 월 이 일은 너
장중에 이시니 너는 번기이 구다 말나 하고 물리쳤으나 심식 조연 산란
하여 밤이면 즘을 일우지 못하고 인허여」 병을 얻게 되었다. 그 본부인도
天倫을 내세운다.

父子間의 天倫, 이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吉童도 마찬가지다. 자기
에게 刺客을 보내어 그의 머리를 베개한 初蘭에게까지도, 父親이 그녀를
사랑한다는 그 하나의 理由로 報復을 斷念한다.

분기률 춤지 못하고 또 죄난을 죽이고져 허다가 상공이 사랑하지를 쇠
닦고 갈풀 떠지며……

이리하여 父生母撫之恩을 萬分之一이라도 갚을 길 없고 生命조차 위협을 느껴 亡命圖生함을 그 父親에게 아했을때,

너 너의 품은 한을 짐작하니 금일로봇하 호부호형호를 헤하노라.

하고 吉童의 恨을 풀어 주었다. 그래서 父子間의 穩當한 關係가 이루어졌다. 吉童의 憎恨을 풀기 위해 初蘭에 대한 보복을 몸소한다.

공이 더욱 분노하여 일변 翳瞞을 내치고 가마니 그 시체를 업시하며……

吉童의 父親에 대한 情이 至極함을 보지 않을 수 없다. 그 兄 仁衡이 吉童을 잡기 위해 慶尙監司에 除授되어 吉童잡는 榜을 붙였을 때 그는 스스로 自現하여 京師에 押送되었으며, 그 아비 「괴를 토해며 엄마저 괴절하니 초인 여덟 절동이 이 경상을 보고 일시의 눈물을 흘리며 낭중으로 조조 환약 일기식 닉여 드려」 구하였다.

홍판세 훌련 득령하여 위종호지라 부인파 인형을 불너 활 너 죽으나 무한이로되 절동의 소성을 우자 못하니 우한이라. 제 심준하였으면 추조을 거시니 적색 분변처 말고 계 어미을 떠겹하라 헤고 명이 진하니……

吉童의 父親은 죽을 때까지 吉童을 생각하고 밟으며, 그 어미까지도 옳게 대접하라 유언하며, 嫪庶分別없기를 당부한다. 吉童 또한 제 아비 죽음을 알고 죽은 후이라도 그 아비를 모시고 가 吉地를擇하여 安葬하고 死後를 모시니 어찌 父子間의 人倫이 그릇되었다 할 것인가. 天倫은 어찌할 수 없고, 지켜지지 않을 수 없다. 다만 社會가 올바른 天倫의 履行을沮害했을 뿐이다.

2. 君臣의 儀理

집을 박차고 나와 社會에 物議를 일으키고 父兄을 괴롭혔을 망정, 그것은 어디까지나 옳지 못한 社會의 制度와 待遇에 대한 不滿의 問露였고 그 报復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朝廷에 物議를 일으키고 今上이 深慮해서 全國이 吉童잡기에 애를 쓰고 捕盜大將들이 出動을 했지만 吉童의 今上에 대한 態度는 決코 悖逆無道한 것은 아니었으며, 今上도 亦是 吉童의 人間과 그 채주에 대해서는 認定하고 容恕해 주었던 것이다. 右捕將 이흠이

吉童을 잡으려 開慶에 왔을 때 變裝한 吉童이 나타나,

보천지하이 막비왕토요 출토지민이 막비왕신이라……

하고 詩經의 말을 引用했을 때는, '勿論 이 흠을 끌려주기 위한 수작이었지만, 그 말 자체에 대해서는 하나도 거짓이 없는 것이며 王에 대한 絶對 忠誠, 臣民으로서의 王에 대한 慮度는 어느 누구와도 다름이 없었던 것이다

신은 본디 천비소심이라 그 아비를 아비라 못해옵고 그 형을 형이라 못해오니 평성한이 미쳐습기로 접을 바리고 적당의 출세호오나 빅성은 축호 불법호옵고 각읍 수령의 춘민고탁호는 저물을 탈취호여소오나 이제 십년 을 지나면 도선을 떠나 가을 끽이 잇소오니 복결 성상은 근심치 마르시고 신을 즐는 관조를 거두옵소셔.

이렇게 吉童은 自己의 立場과 處地를 비로서 上께 疏通했으며 自己의 行한 處事が 결코 國家에 叛逆이 아니었으며 또, 앞으로는 國內를 떠나 그러한 근심조차 끼치지 않겠다고 한다.

그러나 吉童은 이것으로 그의 行動을 끝낸 것이 아니고, 無力하고 아니 꾸운 爲政者輩를 끌려주고, 도리어 兵曹判書의 教旨를 나리면 잡히겠다하니, 朝廷에서는 이를 利用하려 했으나, 아이러나간 하게도 上이 兵判을 除授하고 만다. 이리하여 그는 關內에 들어가 王께 謹拜하고

조신이 죄악이 지중호옵거늘 도로혀 텐온을 납소와 평성한을 푸옵고 도 라가오나 영결전하호오니 복방 성상은 민수무강호조셔

하고 떠나가니, 上이 보시고 도리어嗟嘆하여 '길동의 신과호 치료는 고금의 회한호도다.'하고 教文을 내리고 吉童잡는 公事를 거두었다.

吉童의 才操가 勿論 神出鬼沒하기도 했지만 國내를 그만큼 驚擾케 한 그를 救해 준다는 것은 臣民間의 關係에는 何等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며, 또 이것이 作家의 倫理意識이었던 것이다.

吉童의 마지막 離別時에 王에게 헌한 말로써 이를 再確認할 수 있다.

신이 천하를 반드시 만세를 뵈울가 호오나 천비 소심이라 문으로 옥당의 막히옵고 부로 선천의 막힐지라 이려므로 소방의 오유호와 관부와 작

폐하고 헌경의 들판에 오르시게 흥오미려니 신의 소원을 뿌려
죽읍시니 전하을 하직하고 표선을 떠나가오니 복망 전하는 만수무강호소서

그의 不滿과 反抗과 驟動은 生得的인 身分에 대한 社會의 制約, 그것에
의한 것이지 人的構成의 社會나 國家에 의한 것은 결코 아님 것이다.

그래서 碣島國을 쳐 降服받고 王이 되어서까지도 朝鮮王에게 表文을 올
렸고 朝鮮王은 諭書를 傳했던 것이다.

3. 社會의 倫理

앞 二項目에서 父子 君臣의 倫理를 다루고 別項으로 社會倫理를 다루는
것은 前二項에서 除外된 것을 一括해서 考察하기 위한 便法이다. 여기서
는 다시 家庭, 官署, 寺刹, 生業으로 分類해서 考察한다.

ㄱ. 家庭

吉童의 家庭은 洪判書內外를 主軸으로 하여 子息과 婦妾으로 構成되어
있다. 士大夫의 家庭에서는 血緣을 中心한 家庭構成要員에 奴婢가 있고
또 家長을 爲始해서 男性들을 따르는 妻妾이 있어 이 妻이 결국 하나의 異
端의 要素로 家庭에 物議와 風波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¹³⁾ 本 洪吉童傳
에서도 侍婢였던 春纖이 吉童을 임태하고 謄妾이 되어 같은 妻인 初蘭파의
사이에 反目葛藤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러나 本 作品에서는 妻制度에 대해서는 一言半句의 言及도 없다. 妻
所生吉童이 그에 의한 待賤로 서려워 反抗하면서도 그 制度에 대한 根本
問題에 대해서 論議를 避하는 것은, 그 어미가 賤妻이기 때문인가? 이것은
許筠自身이 妻을 두고 있었다는 事實로 미루어보아 妻制度에 대한 根本的
反省이 없었던 것임에 틀림없고, 男性的인 立場에서 一夫多妻制를
是認한 것임에 틀림없다. 吉童亦是 妻은 아니지만 두 夫人을 거느리고
있었다.

이 作品에서 問題삼고 있는 것은 妻의 所生이든 正室所生이든 嫡庶分別
없이同一한 待遇를 해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正室 柳氏에서 난 兄 仁衡
이 있었지만 父母의 산소를 吉童이 모셨고 모든 자식의 도리를 (死後의 일

13) 尹泰林: 〈韓國人〉 p.145 첨재도는 가부장제에서 고안된 남자들의 형조의 하
나이다. …中略…한국의 여인은 인격을 가진 존재라기보다 남성들의 성의 대
상이요 대를 이을 후손을 생산해 주는 도구에 불과했다. 이러한 계급 사회에
있었기에 접은 처와 동거하고 어여쁜 멀시라도 이를 감수해야만 했지만 접소
생인 서자들은 그가 정당한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분풀이로 저항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지만) 나했던 것이다.¹⁴⁾

ㄴ. 官 署

일일은 질동이 제인을 모흐고 의논을 이제 한경감식 탐관오리로 줄이고
틱호여 백성이 다 견디지 못할 눈자라 우리들이 그쳐 두지 못하니

질동이 조호를 환빈당이라 하여 헌선 팔도를 단너며 각을 수령이 불의
로 저물어 이시면 탈취하고 혹 치빈무의호 치 이자면 구제호며 백성을 죄
법치 아니하고 나라의 죄호 저물은 츄호도 짐치 아니하니……

장안 대로로 혹 초현도 타고 왕녁호며 혹 각을 노문노코 쌍교도 타고
왕녁호면 혹 여소의 도양을 헤여 각을 수령증 탐관오리호는 자를 문득 선
침후체호되 가여소 흥질동의 제문이라 헤니……

吉童의 行跡은 이와 같았다. 그가 내세은 活貧黨이란 그저 <가난한 사
람을 살려주는 무리>라기보다 <貪官汚吏들의 무리>에 대한 對稱이라보
는 것이 좋을 것이다. 貪官汚吏의 胡飲謀求가 있었기에 善良한 百姓들이
굶주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百姓을 救濟하고百姓을 秋毫도
不犯했으며 國家의 財產에는 손을 대지 않았던 것이다. 그의 掠奪과 襲擊
의 對象은 언제나 浚民膏澤하는 무리와 官署였던 것이고 그가 御史로 행
세했을 때 모두가 항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그의 標的은 腐敗한 官署요 官吏였던 것이다. 또 거만하고
無能한 官察를 예지없이 물려주기도 했다.

이는 洪吉童傳에 있어서 가장 뚜렷한 社會批判的 面이라 하겠으나¹⁵⁾,
이런 類¹⁶⁾의 우리 作品의 代表的인 것이라 하겠다.

ㄷ. 寺 刹

그 결의 드려가 먼저 츠승을 불니 니르되 나는 경성의 흥관서의 조제라
이 결의 와 글공부호라 앗거니와 백마 이십석을 보낼거시니 음심을 경하고
찰이면 너희들노 한가지로 먹으리라 헤고……

14) 祭祀는 嫡長者가 主管하는 것이 原則이요 嫡長子의 後嗣가 없으면 嫡衆子嫡
衆子에 後嗣가 없으면 良妾子가, 良妾子의 後嗣가 있으면 賤妾子가, 차례로 無
祀 채임을 진다. (진단학회 : 한국사 근대전기편 p.336) 질동은 형이 있으면서
자기 주판으로 장례를 치루었다.

15) 이런 점은 그의 한글소설 南宮先生傳에도 보인다.

16) 전우치전, 임직종전등

종자 추십인을 다리고 해인사의 나르니 계승이 마주 드러가니 길동이 노승을 불러 문을 니 보낸 쌀노 음식이 부족지 아니호디뇨. 노승 월 엇지 부족호리잇가 너무 황감호여이다. 길동이 상좌의 암고 제승을 일제이 청호여 자기 상을 막게 흐고 먼저 술을 마시며 츄례로 권호니 모든 종이 황감호여 호더라 길동이 상을 받고 먹더니 문득 보리를 가마니 님의 너코 세부니 그 소리 큰지라 제승이 듯고 둘나 사죄호거늘 길동이 거죽 먹로호여 수지저 월 너희들이 엊지 음식음 이다지 부설케 흐뇨 이는 반드시 능멸호 미라 하고 종조에게 분부호여 제승을 다 훈출의 결박호여 안치니 사중이 황겁호여 아무리 훌 줄 모르는지라, 이윽고 대적 츄벽명이 일시의 다라드려 모든 저물을 다 제것가져가듯 혼니 제승이 보고 다만 밑으로 쇼리만 지를 썩름이라.

吉童과 諸僧들의 이러한 言, 行에서 다음과 같은 事實을 抽出할 수 있다.

즉 海印寺의 首僧이라 하더라도 政府高官의 子弟에게는 敬意를 表하고 그 下命에 絶對로 服從한다는 점으로 僧의 身分關係와 絶俗한 僧들의 貪財하는 傾向과 酒肉이 禁止되어 있는데도 不拘하고 飲酒한다는 破戒의 인��을 發見하게 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當時 寺刹의 腐敗相과 官權에의 阿諛相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것이 計筠의 批判의 對象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그가 父親의 棄世를豫感했을 때 <삭발위승호여 일염쇼선을 특고> 朝鮮으로 돌아와 배운 地術로써 얻은 大地에 父親을 安葬했던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作品 가운데의 矛盾點을 發見하게 되는데, 이를 어떻게 解釋할 것인가가 問題다. 批判의 對象이 되었던 身分으로 主人公을 나타내게 한다는 것은 결코 爲僧한다는 그 自體가 問題가 아니고 寺刹의 貪財, 腐敗가 못마땅했던 것임에 틀림없다. 後의 作品, 특히 偉大한 英雄을 主人公으로 한 作品(예를 들면 유총렬전, 조옹전, 낙성비룡 등)에서는 寺刹과 主人公과의 關係가 密接하고 頻繁함을 發見하게 된다. 또 한편 民間假面舞劇들에서는 破戒僧을 골려주는 그런 例들을 發見하게 된다.¹⁷⁾

근. 生 葉

사면을 살펴보니 산천이 청슈호고 인물이 번성호여 가히 암신흘 끗이라
하고 남경의 드려가 구경호며 쪼 제도라 흐는 섬중에 드려가 두로 단니며

17) 楊州別山台놀이, 凤山탈춤 등에서

산천도 구경하고 인심도 살피며 단너더니 오봉산의 너른려는 진것 체일강
산이라 쥬화 칠벽나오 옥야답이 가득하여 살기의 경이 의합호지라……

…모든 영웅을 모화 무네를 달기며 농업을 힘쓰니 병정양족호지라 남종
의 율도국이란 나라이 있으니 옥나 쥬천니의 진것 천부지국이라……

이 作品에 나타나는 生業의 手段이란 農業밖에 없다. 農業에 힘쓰고 兵
丁을 잘 기르면 自然 國家泰平하여 山無盜賊하고 道不拾遺하는 泰平世上
이 이룩될 수 있다고 하였다.

4. 國家觀

여기서는主人公이 本國을 脫出하여 海外에 進出하여 碣島國이란 王國
을 征服하여 王位에 登極하니 作者는 國家君王에 대한 國家觀을 가졌을
것이나, 이 作品에는 그것이 具體的으로 나타나 있지 않고, 漠然히 새로운
운 살기 좋은 理想國을 그리워해 본래 지나지 않는다.

그는 그의 漢文小說 <蔣生傳>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¹⁸⁾
이는 그當時 社會相의一面을 보여주는 것이다.¹⁹⁾

吉童은 南京으로 向해 가다가 碣島國을 發見하고 可히 安身之地임을 마
음으로 기뻐하고 堤島를 據點으로 하여 正粗一千石을 求得하여 무리를
거느리고 들어가 英雄을 모아 武藝를 익히고 農業에 힘쓰니 兵精糧足한지
라 결국 天府之國인 碣島國을 圖謀한다.

그래서 힘을 걸린 能力者가 王이 되고 또 王이 된 이상 普天之下에 莫
非王土요 率土之民이 莫非王臣이니 天下(碣島國)가 다 王(吉童)의 王土요
그러니 그 臣民이 다 分에 맡겨 職責을 맡겨 臣民을 爲해 政治하니 三年
만에 조금도 남의 것을 탐내는 일이 없는 百姓이 되어 泰平世上이 이루어
졌다.

이는 能力에 따라 職分을 맡겨 오직 百姓을 爲해 政治하면 泰平世上이

18) 許筠作 : 蔣生傳—從李鎰防倭 行至鳥嶺 見生芒履曳杖 握手甚喜曰「吾實非死也
向東海 寛一國土去矣…」燕岩의 許生傳도 비슷하다.

19) 尹泰林 : 韓國人 p. 203 이조시대의 농민들이 어떤 상태 밑에 있었느냐 하는 것
은 그들이 그리운 고향이나 토지보다도 차취없는 무인도를 희망하였던 것으로
가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受田者の 隸農이 비참한 경우에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자기 토지를 자기 손으로 경작하는 일반농민도 과중한 수탈로
인해 도망이 산하는 자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한 집이 여러집물의 賦課를 부담
하게 되므로 남은 집들도 모두 도망치는 것이 보통이었다.

무인도를 찾아서 몰려든 농민이 유인도가 되면 다시 유랑의 길을 떠나게 되
고 결국은 餓死하지 않으면 群盜가 되었다.

이룩된다는 그의 豪民論(民을 爲한 國家, 君臣)의 一端을 나타내었다고 하겠다.²⁰⁾

그러나 그는 결코 本國의 聖上에 對等한 王이 아니요, 그 下位임을 알 수 있다.²¹⁾ 또 이는 作者의 王에 대한 君臣의 道를 그대로 나타낸 그의 意識의 所產임을 알겠다.

三. 그 嘴矢的인 點

本項에서는 이 洪吉童傳에서부터 始作하여 그 以後 小說作品들의 하나의 類型的인 Pattern을 이루게 될 몇 가지를 살펴본다. 흔히 우리 古代 小說作品들을 類型的이라 하는 것은 이러한 Pattern에 依한 것이 아닌가 한다.

1. 出生譚(偉大한 主人公)

선시의 공이 걸음을 나흘 셔의 일동을 어드니 문득 邪精벽역이 진동하여 청룡이 수염을 거스리고 공의게 향하여 다라들거늘 놀나 셔다르니 일장춘몽이라 심중의 德회하여 성자호펴뇌 이제 룽동을 어더시니 반드시 귀호조식을 나흐리라 헝고……출섬을 엊끌고 협실의 드려가 정이 친압호니…과연 그 달못허 터기 엿셔 십삭만의 일기 육동을 성호니 괴골이 비법호여 진짓 영웅호걸의 괴상이라.

이것이 主人公 吉童의 出生譚이다. 龍夢을 얻어 貴子(英雄豪傑)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偉大한 主人公의 出生譚의 奇異함은 우리의 傳來說話들 가운데서 그 源流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우리 古史書에 傳하는 建國神話는 例外하더라도 三國史記 列傳, 金庾信條에서 찾아보면,

舒玄 庚辰之夜 夢熒惑鎮二星降於己 萬明亦以辛丑之夜 夢見童子衣金甲乘雲入堂中尋而有娠 二十月而生庾信²²⁾

이와 같이 별이 떨어지고 童子가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 집으로 들

20) 許筠은 豪民論을 썼다. 이것은 그의 豪民論의 具象이겠다.

21) 表文을 올리니 慰諭使를 보내어 謂書를 내린다.

22) 三國史記 卷第四十一列傳 第一金庾信上

어오는 꿈을 꾸고 二十月 만에 偉大한 庚信을 낳은 것이다.

또 強首의 出生譚을 보면,

其母夢見人有角而妊娠²³⁾

그 어머니가 꿈에 뿔을 가진 사람을 보고 임신하여 그를 낳았다 했다.

또 前二者와는 다르지만 弓裔를 보면,

以五月五日生於外家 其時屋上有素光若長虹 上屬天 日官奏曰 此兒以重午
日生 生而有齒 且光焰異常 恐將來不利於國家 宜勿養之²⁴⁾

라 하여 異蹟을 나타내 보였다 한다.

母忽夢星墜入懷 因有娠 及誕²⁵⁾

初母夢流星入懷 因而有娠 及將產 有五色雲覆地²⁶⁾

前者는 慈藏, 後者는 元曉의 出生譚이다.

上記 引用의 出生譚들에서는 대개가 별이 떨어지는 異夢을 얻고 貴子를
出產케 되었다는 것인데, 洪吉童傳에서는 龍夢을 얻어 吉童을
낳았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아마 이것은 星에서 龍으로 祥瑞스러운 吉兆의 觀念이
變遷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어쨌든 한 作品의偉大한 主人公의 誕生은 條夢, 異跡에서 이루어진다
는 것이 洪吉童傳에 導入되어 後期作品들에傳해지는 하나의 出生公式인
것이다.

此日 저녁 부부 상호에 나아갔더니 문득 큰 벽력소래 나며 천문이 열렸
는데 큰 별이 실중에 떨어져 크기는 동해만하고 광채 찬란하여 사벽에
고요하니 이목이 현황하더라. 이후고 화하야 날으는 황용이 되어 정중에 서
렸더니 벽력 한 소래에 문득 두 날개를 벌려 하늘로 오르니 길이 천장이
나하고 금광이 또요하야 어리니 공이 놀라 깨치니 남가일몽이라…… 과연
차차부터 잉태하여 이향이 만실하고 서기 자로 어리니…… 십삼단에 생자

23) 三國史記 卷第四十一列傳 第六 強首,

24) 三國史記 卷第五十列傳 第十彌 強首條.

25), 26) 三國遺事 卷四, 元曉不羈, 慈藏定律.

하니 아희 나며 울음이 용광하고 기상이 비범하야 속풍 같으니…… (洛城飛龍・韓國古典文學大全集권5)

이는 洛城飛龍의主人公 이경모의 出生譚이다.

이외 朴氏傳의 李時白은 구슬이 變한 靑衣童子의 夢兆로, 劉忠烈傳의 劉忠烈은 青龍을 태고온 仙官의 夢兆로, 張國振傳의 張國振은 青龍이 變한 仙童의 夢兆로, 洪桂月傳의 洪桂月은 仙女의 夢兆로 淑香傳의 淑香은 桂花와 황금 산페지의 夢兆로, 玉丹春傳의 李血龍은 青龍의 夢兆로, 玉娘子傳의 李始業은 금강산 부처님의 夢中指示로, 梁山伯傳의 梁山伯은 仙童의 夢兆로, 白鶴扇傳의 劉白魯는 白鶴을 태 仙童의 夢兆로, 魚龍傳의 魚龍은 東海龍子의 夢兆로, 權益重傳의 權益重은 구슬을 꿨고 각각主人公들을誕生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한作品의主人公, 偉大한英雄을主人公으로 한作品에서는 이러한出生譚으로부터作品이始作된다.

2. 脫出과 復歸의 公式

여기서 脫出이란主人公이 避諱지 못할 逆境에서, 또는 自己의 修業을爲하여 一時 本來의 家庭이나 社會集團으로부터 逃避하여 學業과 修練을 쌓는 것을 말하며, 復歸란 學業과 修練을 마치고 元來의 位置로 돌아와 富貴와 功名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한다.

洪吉童傳에서는 賤待와 生命의 威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家庭을 떠나고 나아가 賊窟에 들어 魁首가 되고 活貧黨을 組織하여 不義之財를 奪取하여 救民하고 끝내 兵判을 除授받고 碩島國의 王이 되는 것으로 그公式을 이루고 있다.

여기서의 脫出은 家中賤待로 말미암아 出家하는 것이겠고, 復歸는 兵判을 除授받고 결국 碩島國王이 되는 것이 된다.

이러한 公式도 古代小說作品의 類型的인 Pattern을 形成한다고 하겠다.

趙雄傳에서는 趙雄이 이 두명의 威脅에서 脱出 逃避하여 전전하다 山寺에 들어가 修業하고, 이 두명이 謐叛을 때 그를 차 大元帥가 되고 富貴功名을 누리며,

魚龍傳에서는 繼母 강씨의 威脅에서 脱出하여 道士를 만나 修業하고 결국 北 흥노의 손에서 宋室을 구하고 富貴功名을 누리며,

그의 劉忠烈傳의 忠烈, 洛城飛龍의 이경모, 등등 많은作品에서 같은 Pattern을 發見할 수 있다.

그래서 이 脫出과 復歸의 公式도 이 洪吉童傳에서 시작된 하나의 Pattern이다.²⁷⁾

3. 出戰과 勝利의 公式

이것은 範疇가 局限된 戰爭을 素材로 取扱한 作品에서 發見되는 것이다. 여기서 出戰이란 概念을 擴大하여 使用할 必要를 느낀다. 그래서 海印寺를 掠奪할 때, 咸鏡監營을 襲擊할 때 등에도 出戰이란 概念에 括시켜야겠다.

出戰이란 作家의 便에서는 主人公의 意圖과 하면 그 概念이 너무 擴大될까.

그리고 勝利란 그 意圖가 勝功裡에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公式은 하나의 普遍的인 Pattern이 되리라 생각한다.

吉童이 海印寺의 掠奪에도 成功했고, 咸鏡監營의 襲擊에도 成功했으며, 妖鬼退治나 朝廷과의 對決에도 勝利하여 兵判까지 除授받았으며 碱島國의 侵略에도 勝利하여 王이 되었다.

偉大하고 善한 主人公이 强暴하고 惡毒한 敵對者에게 勝利한다는 것은 作者의 倫理다.

우리는 이와 같은 例를 九雲夢에서 많이 發見할 수 있고 그의 英雄을 主人公으로 한 많은 作品들에서 發見하게 된다.

4. 支配의 原理

支配란 한마디로 말하면 出將入相하여 戰時에는 全軍을 指揮하고 平和時には 人臣의 極에 處하여 百姓을 支配하는 것을 말한다.

이 作品에서 吉童은 賊窟에 들어가 魁首가 되어 賊徒를 指揮하여 舉事를 圖謀했으며, 또 權力行事는 해보지 못했지만 全國의 兵權을 左右하는 兵曹判書가 되었으며, 堤島에서 治者的 役割, 碱島國을 칠 때 스스로 先鋒將이 되었으며, 降服을 받고는 王位에 올랐던 것이다.

이러한 支配의 原理는 後期作品에서 하나의 公式이 된 것이다.

이는 作者의 理想의 意圖로서 當時讀者들의 心理에迎合하기 위한 作者의 深層心理의 發露가 아닌가 한다.

이러한 支配의 類型은 大概 두 가지로 大別해서 말할 수 있다. 즉 國家

27) 金烈圭教授는 이러한 Pattern을 祭儀에서 그 源泉을 찾고 있다(韓國民俗과 文學研究 : 一潮閣 p. 98)

에서 보이는 科學에 駐元及第하여 王寵을 염어 升進하는 方法과, 다른 하나는 逆境을 脫出하여 修業後 國家에 大亂이 있을 때 單身出戰하여 敵을 殲滅하고 王의 認定을 끌어 大元帥가 되고 亂의 不定後 丞相의 자리에 오르거나 君侯에 封해지는 類型이 있다. 그러나 어떤 作品에서는 二者의 類型이 複合된 形態로 나타난다.

이러한 類型에서 결국 作品은 Happy-end로 終結을 지우게 되는데, 이와 같은 Happy-end의 終結法도 이 洪吉童傳에서 비롯한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 申遺腹傳에서 例示해 본다.

申遺腹은 遺腹子로 태어나 母親과 侍婢마저 없고 流離乞食하다 李蟾의 三女 瓊貝와 結婚하고 安住하다 圓光大師를 찾아가 修業하여 科舉에 駐元及第하여 兵曹判書에까지 升進하였다가 가달과 서번의 난에 大明이 朝鮮에 清兵했을 때 단연 出戰하여 大元帥가 되어 胡兵을 擊破하여 明天子로부터 魏國公에 冊封되어 回軍했다.

이러한 類型은 後期 理想的 英雄을 主人公으로 한 作品들의 하나의 Pattern을 形成했다고 하겠다.

5. 傳記性

이 項目에 關한 것은 앞 構造의 出發과 終結에서 言及한 바이다.

傳記란 한 人間의 全生史의 記錄이라 規定할 때, 史家の 손에서 이룩된 傳狀類에 屬하는 것이 全部 여기에 包含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의 始源은 이미 古史書에서 찾을 수 있겠으나, 作家의 意圖에 따라 虛構의 으로構成된 作品으로서는 그 源流를 洪吉童傳에서 찾아보아야 하지 않을까.²⁸⁾

화설 朝鮮國 세종묘 시절의 혼 저상이 이시니 성은 흥이오 명은 뵈라 뒤
여명 문거족으로 쇼년등과하여 벼슬이 니조관서의 니르비 물망이 묘야의
웃돌이요 충효겸비호기로 일흘이 일국의 진동호더라 일즉 두 아들을 두어
시니 일즈는 일흘이 인형이니 정실뉴시 소성이오 일즈는 일흘이 길동이니
시비 춘심의 소성이라.

28) 金鰲新話에서도 찾아 볼 수 있으나 家系에서 부터 主人公의 終末以後의 家系의 繼承問題等으로 볼 때 亦是 洪吉童傳이 그 始源이라 하겠다.勿論 그 以前의 始源은 傳狀類에서 發見할 수 있고, 그 이상 神話에까지 邊及해 갈 수 있을 것이다. (金烈走:韓國民俗과 文學研究 p. 92) 趙東一:英雄의一生 그 文學의 展開, 東亞文化第10輯 p. 210)

이 것이 作品의 虛頭요 그 家系의 說明이다.

그 다음에 吉童의 一生의 經緯이 펼쳐지며,

초설 율도왕이 삼송을 맷치며 떠나면서 기세호미 선승의 안장호 후 삼
성을 맷치며…… 당조 현으로 세조를 봉하고 기여는 다봉군호니라…… 왕
이 치국 삼십년의 훌륭한 특별한 공로에 봉호니 쇠 친십이세라, 왕비 이어 봉호미
선승의 안장호 후 세조 즉위호에 떠나로 재계승승호여 태평으로 누리더라.

이것이 本 作品의 終結部이다. 主人公은 有限者로서 此生을 마치며 그
子孫들이 훌륭히 그 遺業을 繼承하며 繼繼承한다는 結末이다. 바로 主
人公의 一代記, 즉 傳記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傳記性은 古代小說의 대부분의 作品構成法인 것이다.

II. 結論

위에서 分析, 論議해온 바를 整理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作品의 構造의 面에서는, 한 偉大한 主人公의 一生의 事件을 主로
다룬 傳記의 構造로, 그 構造의 主된 力勢은 當時 制度의 矛盾에 依
하여 落縮되고 賤待받는 主人公, 吉童이 Protagonist가 되고 矛盾된 社
會制度가 Antagonist가 되어 結構되어 가는 것이다, 거기에 作家의 構
造意識인 主人公의 出生과 現實世界에서의 終結을 全作品의 Time-span으
로 構造되어 있으며, 그 構成의 統一性이란 Cause and effect의 關係가
아니고 作家의 倫理意識에서 오는 것이다.

2. 作品의 倫理, 即 作品의 主題로는 傳統의 父子의 倫理, 君臣의 倫
理 그리고 最高의 倫理라고 하는 對國家觀에는 何等의 爭議가 提起되지
않았으며, 社會의 倫理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도, 家庭, 官署, 寺刹과
生業에 關한 것만이 發見된다.

그런데 生業 即 產業構造에 對해서는 農業社會以外 이령다한 問題를 提
起하지 못하고(海外開拓이란 思考에 많은 讒辭를 보내긴 하지만)家庭의 婦
庶差別을 하지 말고 對하라는 것 외에 何等의 言及이 없이 지나가고,
오직 腐敗하고 貪財하며 阿諛의僧侶들에게만 批判의 화살을 보내고,
抵抗하고 對決한 것은 苛斂誅求하는 貪官污吏들의 集結所인 官署였던 것

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Antagonist*로서의 社會制度에의 對決이라면, 그 制度를 만들어낸 全體社會 卽 國家 君王에 對한 對決이 있어야 할 것이지 만 이것이 弱化乃至 緩少되어 下部官署만이 그 對決의 對象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洪吉童傳의 主題는 어떤 것으로 意識되어야 할까. 흔히 이 作品을 前後二部로 나누어 前半部는 社會小說이고 後半部는 理想小說이라고들 하나, 本論議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이 作品은 二部로 나누어질 수도 없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다. 우리는 오직 洪吉童이라는 超人的 힘을 가진 偉大한 主人公의 人生遍歷에 興味을 가질 뿐이고, 吉童의 不利한 社會的인 地位에 同情하고 活貧黨으로서의 吉童에 啓采를 보낼 뿐이다 이것이 바로 作家意圖라고 하겠다.

3. 洪吉童傳을 小說史上 國文小說의 曙光라 한다면(勿論 小說發生學의 觀點에서는 再考의 餘地가 있겠지만) 그 以前의 여러가지 Motif들에 依하여, 여기에서 公式化된, 그리고 以後의 作品들에 採用된 몇개의 事實들을 發見할 수 있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① 出生譚(偉大한 主人公) — 特異한 兆朕에 依한 偉大한 主人公의 出生이다.

② 脫出과 復歸의 公式 — 主人公의 出生에서 成長過程에는 克服해야만 할 危境이 너무 많아, 주어진 環境에서 逃避, 脱出해야 한다. 그期間은 修業修練을 通하여 힘을 기르는 時期이며, 그 培養된 힘으로 다시 本來의 環境으로 復歸하여 그 環境을 改善乃至 改革한다.

③ 出戰과 勝利의 公式 — 脫出에서의 復歸는 바로 出戰에 依한 勝利이며 이와 같은 出戰—勝利는 反復되는 Pattern이다.

④ 支配의 原理 — 出戰과 勝利에 依해 構築되는 것은 支配力의 獲得, 擴大다. 出將入相, 그리하여 一人之下요 萬人之上의 位置에 到達한다. 그러나 最高의 地位, 卽 帝王에 到達할 수는 없다. 그것은 叛逆이라는 意識이 支配하고 있기 때문이다.

⑤ 傳記性 — 作品에 取扱되는 Time-span은 主人公의 出生과 死滅間이다. 그리고 거기서 取扱되는 事件은 主人公의 Topical 한一生事이다. 그래서 自然 이것은 主人公의 傳記가 되지 않을 수 없다.